

돼지 사육 급감, 삼겹살 값도 들쭉

구제역 여파 20% 살처분...800만마리 수준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및 매물로 국내 돼지 사육 규모가 11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산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구제역 발생 이후 한때 약세를 보였던 소매가격도 설을 앞두고 오름세를 타고 있다.

가격 급등은 구제역에 따른 도축장 폐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돼지 숫자 감소로 소매가격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돼지 사육 규모 2000년 3월 이후 최저=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8일 현재 구제역 발생에 따라 매몰 처분된 돼지는 196만4436마리로 지난해 12월1일 기준 돼지 사육

규모인 998만632마리의 20%에 육박했다. 5마리 가운데 1마리꼴로 살처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1일 조사에서 매몰처분 돼지를 빼 단순 비교하면 현재 돼지 사육규모는 801만여 마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 1분기 788만6932마리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도매가격 연일 최고치...소매가도 상승세 반전=돼지고기 가격은 구제역 발병 직후부터 도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소매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는 구제역에 따른 도축장 폐쇄 및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 생긴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도매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돈육 대표가격은 지난 17일 전국 평균으로 kg당 5859원으로 구제역 발병이 알려진 지난해 11월29일 3703원에 비해 58% 올랐다. 돈육 대표가격은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입찰의 방법으로 팔리는 돼지고기 경락가격의 합계액(당일 포함 직전 2일간)을 중량합계로 나눈 가격이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가격은 연일 최고가로 보면 된다”면서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물량은 적는데 도매인들이 공급 규모를 맞추려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 두수는 작년 11월 29일 1만 3000 마리를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7000~9000 마리대로 줄었다.

특히 도매가격의 급등세는 장기화되고 있다. 설을 앞둔 최근에는 지난 7일 이후 7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다. 하루 오름폭도 지난 10일 이후 매년 100원을 웃돌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248원이나 됐다.

지난해말 약세를 띠던 소매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삼겹살 중품의 전국 평균 가격은 500g당 8762원으로 1주일 전(7652원)보다 14.5%,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을 앞두고 공급 부담을 덜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운대 광주시장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장들은 1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광역시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지원 등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송영길 인천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강운대 광주시장, 박영우 울산시장.

〈광주시 제공〉

姜시장, 국무총리·6대광역시장·여야대표 연석회의 제안

강운대 광주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와 6대 광역시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매년 개최해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협의하고,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광역시장협의회에 참석한 강시장 등은 소방도로 개설과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국가가 추진

하길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부득이한 귀향객의 경우 도내 곳곳에 설치된 방역조소 통과 시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설 명절 예정된 각종 친목 모임 등에도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사 출입 및 AI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관광도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AI의 경

우 모두 40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의심 신고가 크게 줄어드는 등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모든 소 54만5000마리와 중돈 돼지 11만4000마리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률은 17일까지 소 37.9%(20만 6330마리), 돼지 73.7%(8만4060마리) 등 44.1% 수준이다.

전남도는 AI 발생지역의 경우 살처분·매몰 등에 인력이 투입되면서 애초 계획(60%)보다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 농가 자가접종 대상을 확대해 늦어도 19일 오전까지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도 관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7277마리)와 중돈장의 돼지(462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18일까지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하는 도심재생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상고가 방식의 경전철 설치가 도시 미관 저해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경전철 설치를 전제로 한 정부의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을 설엔 내려오지 마세요” 전남도 귀향 자제 호소

“이번 설엔 내려오지 마세요”

전남도가 전국 호남향우회에 귀향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가 전남 전역을 휩쓸고 있는데다,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가족전염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 설 명절 귀향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고 AI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호남향우회에 가급적 설 명절 귀향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부득이한 귀향객의 경우 도내 곳곳에 설치된 방역조소 통과 시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설 명절 예정된 각종 친목 모임 등에도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사 출입 및 AI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관광도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AI의 경

우 모두 40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의심 신고가 크게 줄어드는 등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모든 소 54만5000마리와 중돈 돼지 11만4000마리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률은 17일까지 소 37.9%(20만 6330마리), 돼지 73.7%(8만4060마리) 등 44.1% 수준이다.

전남도는 AI 발생지역의 경우 살처분·매몰 등에 인력이 투입되면서 애초 계획(60%)보다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 농가 자가접종 대상을 확대해 늦어도 19일 오전까지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도 관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7277마리)와 중돈장의 돼지(462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18일까지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KAVO 해임’ 법정 비화

MBH,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키로

F1(포틀러원) 대회 운영법인인 KAVO를 둘러싼 잡음이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보 주주사인 MBH(엠브릿지)측 당스·공동대표 정영조, 장홍호)는 “지난 14일 날치기로 행해진 카보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KAVO는 지난 14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핵심 임원진인 정영조 대표와 장홍호 기획마케팅 본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지난 14일 MBH를 제외한 카보 주주사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의결한 정영조 대표이사 등의 해임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최종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에게 공지한 뒤 2주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주주사인 MBH의 동의도 없었고 이사회 개최 이후 3시간 만에 주주총회를 강행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일부 주주사들이 부정적 측면만 과장해 대회를 실패로 규정하고 정 대표 등에게 이 책임을 전가했다”면서“경기장을 완공하지 못한 SK 건설, 이사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유이용권을 발행, 혼란을 야기한 F1 조직위원회 등 다른 주주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조사가 완료된 뒤 책임을 따지는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정 대표의 주장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장홍호 MBH 공동대표는 아울러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F1 대회 조직위가 지난 대회 기간 중 220억원 상당의 티켓을 가져간 뒤 여지껏 정산하지 않은 160억원 상당의 티켓 대금 문제와 건설사가 경주장 공사를 지연한데 따른 100억원 가량의 지체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 등 전국 34곳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광주시와 여수시, 장성군 등 광주·전남 3곳과 전북 전주시·군산시·김제시 등 3곳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올해 국비와 지방비 408억원을 투자해 전국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의 CCTV를 통합해 광역단위 통합관제센터 형태로 설립되며, 이들 관제센터는 초등학교 CCTV와도 연계된다.

행정안전부는 CCTV 관제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본사 인사

▲金應誌:전북취재본부 전주주재
▲洪胤先:전북취재본부 김제주재
▲尹吉鎭:전북취재본부 부안주재

〈1월 19일자〉

빛日만평

- 김중두



한국인은 ‘고달픈 鳳’이다

2200개 넘는 전남 섬 정보 한눈에

전국 첫 ‘섬 관리시스템’ 개발

전남도는 18일 전국 최초로 도내 섬 위치와 이름, 통계를 일원화해 전산화한 ‘섬 관리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섬 관리시스템은 도내 2219개에 달하는 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섬 이름과 토지정보로 모든 섬의 정보 검색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섬의 정확한 면적, 필지 수, 소유자(국공유지·사유지) 정보를 비롯, 지목별 다양한 통계를 함께 실어 섬

과 해양을 테마로 한 휴양·레저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속하는 섬과 갯벌정보, 도서개발 계획 등도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다.

전남도는 현재 위치와 다르게 등록된 섬 1421개를 정비하면서 섬 통계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자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 항공사진과 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섬을 조사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티몽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은 애플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영,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언어(최복수)외 2명

영어(신경찬)외 2명

수학(주석진)외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카카오 지리지에서 상담하세요.

since 1985.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명/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결임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초 개강!! **수시등록가능**
(주간/주말반 전액석가 있음)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2개월 15만원

www.egos.co.kr [1차 : 5월 29일 시험대비]

062)226-5050 으로 신청바람!!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 언제든 청강 환영!

[서충철경영박사, 김세미농학박사, 윤종아(전)물관원,
최대농통상협의회장, 손승운, 송상호, 전정훈교수진]

◆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접농업전문학원 0226-5050

위치 :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